

파생어의 의미 구조와 접사의 의미

김 숙 정*

1. 서론
2. 형태 중심의 분석 방법
 - 2.1. 단절적 분석 방법
 - 2.2. 연계적 분석 방법
3. 의미 중심의 분석 방법
 - 3.1. 합성적 의미와 비합성적 의미의 구분
 - 3.2. 접사의 의미와 비합성적 의미의 구분
4. 결론

〈한국어초록〉

본고의 목적은 파생어의 의미 구조를 고려하여 접사의 의미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파생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관점을 형태의 중심 분석 방법과 의미 중심의 분석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형태 중심의 분석 방법은 접사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의미 중심의 분석 방법을 대안으로 삼는 데 필요한 개념들을 확인하였다. 첫째는 파생어의 의미를 파생을 통해 형성되는 합성적 의미와 파생이 완료된 뒤 형성되는 비합성적 의미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파생어가 다의의 확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를 합성적 의미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의미만을 접사의 의미로 귀속해야 하는 이유도 함께 확인하였다.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사전학센터 연구교수

주제어 : 형태 중심의 분석 방법, 의미 중심의 분석 방법, 접사의 의미, 합성적 의미, 비합성적 의미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접사의 의미를 파생어의 의미 구조와 연계하여 고찰하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논의들이 접사의 의미로 귀속시키고 있는 의미 중 상당 부분이 접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파생어의 의미는 파생 과정에서 형성된 의미와 파생이 완료된 뒤 형성된 의미로 구분된다. 논의의 초점이 파생어의 의미 그 자체에 놓여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구분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하지만 논의의 초점이 접사의 의미로 옮겨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본고에서는 접사의 의미 역시 같은 전제 위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그럴 경우 접사의 의미 기술이 상당히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언어 표현은 의미와 형식의 이원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파생어의 경우 파생어의 이원적 구조뿐만 아니라 구성 성분의 이원적 구조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더욱 흥미로워진다. 파생어 형태의 형성 과정과 파생어 의미의 형성 과정이 별개의 층위에서 이루어진다는 함의가 해석되기 때문이다. 각각의 결합 과정은 개별적이며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 송현주(2011)에서는 Saussure(1916)에서 언급된 ‘자의성(arbitrariness)’과 ‘동기화(motivation)’의 개념을 이용하여 합성어가 가진 형식과 의미 간의 인지적 관련성을 설명하였는데,¹⁾ 파생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1) Saussure(1916)에서는 우리가 언어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자연의 무질서한 시스템에 동기화가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고, 그 결과 자의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파생어와 파생어의 형성 과정이 이원적이라는 것은, 파생어의 형태 구조와 파생어의 의미 구조를 살피는 과정도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형태 층위에서의 결합 현상에 주목하였으며, 파생어 의미의 구성단위는 형태의 구성단위에 대응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의미 구성단위와 형태 구성단위가 일대일 대응을 이루는 파생어는 일부분이다. 파생어를 형태 단위로 분석한 뒤, 파생어의 의미를 각 형태 단위에 배분하는 방식은 파생어의 의미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며, 또한 접사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형태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파생어의 의미 구성을 살피고, 이 관점 위에서 파생어의 의미 중 접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부분을 규정하고자 한다.

접사의 의미는 다루기가 어렵다. 어기의 의미는 접사의 의미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료하다. 접사와 결합되지 않은 형태, 즉 단독으로 사용된 예를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접사는 말 그대로 다른 말에 붙어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다. 파생어의 의미와 관련된 논의 중 상당수가 접사의 의미를 기술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본고에서는 파생어의 의미를 예측 가능한 규칙의 결과물로 보지 않으며, 본고의 목적 역시 파생어의 의미 생성 규칙을 모색하는 데 두지 않는다. 파생어의 의미를 분석적으로 다루는 논의 중에는, 파생어의 의미를 어기의 의미와

하였다. 자의성과 동기화는 모두 언어의 형식과 의미가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 위에서 성립된 개념이다. 동기화의 개념 정의 및 언어 구조와 의미 간의 동기화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송현주(2011)을 참조.

접사의 의미를 변수로 하는 함수의 결과값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생어의 의미가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기대가 포함된 것으로, 어기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가 가진 조건을 잘 정리하면 파생어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파생어의 의미는 구성 요소의 특성뿐만 아니라 단어의 형성 당시 화자가 가진 표현 의도 및 생성 맥락 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파생어에 제3의 의미가 포함되거나 형성 가능한 여러 의미 중 몇 가지가 정착 의미로 인정받는 과정은 예측이 어렵다.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살피는 일환으로 파생어의 의미를 형태론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논의들, 즉 ‘형태 중심의 분석 방법’을 살핀다. 3장에서는 의미론적 관점에서 파생어의 의미를 다루는 방식, 즉 ‘의미 중심의 분석 방법’을 구체화할 것이다. 의미 중심의 분석 방법은 본고의 논의 이전에도 제안되었으나 의미 중심의 분석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본고에서는 의미 중심의 분석 방법을 적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접사의 의미로 귀속해야 할 범주를 확인할 것이다.

2. 형태 중심의 분석 방법

형태 중심의 분석 방법이란 파생어의 의미를 어기의 의미와 파생 접사의 의미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파생어의 의미 구성단위가 형태의 구성단위와 일치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형태 중심의 분석 방법은 접사의 의미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더 나눌 수 있다.

접사의 의미를 기술하는 첫 번째 방식은 파생어의 의미에서 어기의 의미를 배제한 뒤 남은 의미를 파생 접사의 의미로 처리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어기의 의미를 잘라내고 남은 의미를 유형화한 결과가 파생 접사의 의미가 된다. 이때 어기의 의미 특성은 파생 접사의 의미 기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단절적 분석 방법’으로 부른다. 두 번째 방식은 어기의 의미 특성을 파생 접사의 의미 기술에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이 방식은 접사의 다의를 기술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어기의 의미 특성을 단어 변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연계적 분석 방법’으로 구분한다.

2.1. 단절적 분석 방법

접사의 의미를 다루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접사의 의미를 파생어의 의미에서 어기의 의미를 제외한 나머지로 처리하는 방식이다(송철의:1992 등). 조일규(1994)는 중세 국어 파생 접사의 의미 분석에 단절적 분석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 논의이다. 이 논의에서 제시한 접사 의미의 기술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가지의 뜻바탕을 먼저 그 가지가 결합된 파생어의 뜻에서 밑말의 뜻을 뺀 나머지의 뜻을 찾고 여기에서 다시 이들이 가진 공통된 뜻을 찾아 그것을 그 가지의 중심되는 뜻바탕으로 삼는다(조일규1994: 34).

위에 제시된 의미 기술 과정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째는 파생어에서 어기의 의미를 배제하는 과정이고, 둘째는 나머지 의미들에서 공통점을

찾아 기본 의미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조일규(1994)에서는 파생 접사의 의미를 ‘중심 뜻바탕’과 ‘특이 뜻바탕’으로 구분하는데, 중심 뜻바탕이 기본 의미에 해당된다. 논의에 제시된 예를 살펴보자.

2) 가. 중심 뜻바탕: X하는 일

예) 노리, 뜨끔미[무자맥질, 덩시기[덩거나 추운 것]²⁾

나. 특이 뜻바탕

- | | |
|--------------------|----------------------|
| ① X정도, 단위 | 예) 드리 ³⁾ |
| ② (X행위)의 특성을 가진 사물 | 예) 드리, 옷거리, 썩거리 |
| ③ (X행위)가 나타난 현상 | 예) 빙알히 |
| ④ (X행위)의 특성이 있는 시간 | 예) 희도디 ⁴⁾ |

2)는 동사 어기에 결합하는 중세 국어 명사 파생 접미사 ‘-이’의 의미를 기술한 것이다. 2가)의 <X하는 일>은 파생어 ‘노리, 뜨끔미, 덩시기’ 등에서 어기 ‘놀-, 뜨끔-, 덩식-’의 의미를 배제하고 남은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⁵⁾ 이 논의는 파생어의 의미가 낱말 형성 규칙에 의해 규칙적으로 생성되며, 특이 의미는 여과 장치를 통해 부여되는 것이라는 하치근(1989)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파생어에 포함된 특이 뜻바탕이 접사

-
- 2) 괄호 안의 현대 국어 대응어나 의미 풀이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추가한 것이다.
- 3) 파생어의 예로 제시된 ‘드리’는 현대 국어에서는 ‘들이’의 형태로 표기된다. 『표준』에서는 이를 접사로 처리하고 있다. 2나①)은 2가)나 2나②,③,④)와 달리 어기의 동사로서의 의미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의미가 풀이되어 있으며, 현대 국어와 동일한 용법의 용례(勺 되 들이 작 「신정유합하:58」(1576))를 제시하고 있어 이 역시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접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 4) ‘해돋이’는 <해가 돋는 시간>뿐만 아니라 <해가 돋는 일: 예)장엄하고 화려한 해돋이의 의식>의 의미도 가진다. 전자만이 2나④)에 해당되고 후자는 2가)에 해당된다.
- 5) <X하->는 어기가 담당하는 의미를 표상하는 부분이므로, 괄호를 이용하여 <(X하)는 일>과 같이 어기가 담당하는 의미를 구분해 주는 것이 보다 명료한 기술이 된다. 또한 2나)에 제시된 의미 기술과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

에 귀속된 의미이며, 이것이 부여되는 과정 역시 규칙의 한 부분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 주장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여과 규칙의 명세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주어진 정보, 즉 파생 접사의 나열된 단의들은 의미 생성의 규칙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규칙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파생어의 의미를 한 개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이 논의에서는 파생어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경우 가장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는 규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그 외의 의미는 의미 확장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마기’는 <막는 일>과 <마개>의 의미를 가지는데, <막는 일>은 규칙에 의한 결과로, <마개>는 <막는 일>로부터 의미 확장을 겪은 결과로 구분하는 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분은 논의 내에서의 모순을 낳게 된다. <마개>를 뜻하는 ‘마기’와 2나②의 ‘웃거리’의 관련성으로 인해 특이 뜻바탕에 기술된 의미 전체를 의미 확장에 의해 생성된 의미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특이 뜻바탕이 접사의 의미에 속한다는 설명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제시된 접사의 다의를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얹이’의 ‘이’를 <배를 얹는 일>, 즉 2가)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지 않고 2나③)으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두 의미가 서로 어떻게 변별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해당 접사의 의미 기술에 사용된 단의 변별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준들이 타당한지, 또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다음에 살펴볼 연계적 분석 방법이다.

2.2. 연계적 분석 방법

연계적 분석 방법은 접사의 단의를 기술하는 데 어기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의미 기술 방법이다. 연계적 분석 방법은 단절적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파생어의 의미를 어기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로 양분한다. 단, 어기의 문법적, 의미적 속성을 명세하여 접사의 단의를 변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이다.

김혜령(2007)에서는 현대 국어 고유어 접사의 의미를 연계적 분석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다음은 논의에 제시된 접사 단의 기술의 기준과,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명사 파생 접미사 ‘-이’의 의미이다.

- 3) 접사 단의 설정의 기준(김혜령 2007: 18)
 - 가. 파생어의 문법 범주
 - 나. 어기의 의미적 부류
 - 다. 어기의 문법 범주

〈표1〉 ‘-이3’의 단의별 환경 구분(김혜령 2007: 47-48)

파생어의 문법 범주	선행 어기		해당 용례	단의
	문법 범주	의미적 부류		
명사	동사	동작	먹이, 벌이, 해돋이, ...	①그러한 것.
		동작	때밀이, 잿먹이, ...	②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동작	재떨이, ...	③그러한 일에 사용되는 물건.
	형용사	정도	길이, 높이, 넓이, ...	④그러한 정도.
	명사	비정상적인 신체의 일부	애꾸눈이, 절름발이, ...	⑤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
	부사	의성의태어	짹짹이, 딸랑이, 꿀꿀이, ...	⑥그러한 특성을 가진 대상.

김혜령(2007)에서는 접사의 의미를 기술할 때 각 의미가 실현되는 객관적인 조건으로 파생어의 문법 범주, 어기의 문법 범주, 어기의 의미적 부류를 제시하였다.⁶⁾ 앞서 단절적 분석 방법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이다.

하지만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시된 단의 설정 기준 역시 해당 접사의 단의를 변별하기에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표1>에서 ‘-이’의 단의 ①~③은 파생어의 문법 범주, 어기의 문법 범주, 어기의 의미 부류가 모두 동일하므로, 정리된 조건으로는 단의의 변별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단의를 변별할 수 있을 만큼 단의 변별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의를 변별하지 않는 것이다.

전자는 결국 어기의 의미 특성을 보다 세분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젓먹이’의 ‘-이’가 <(X하)는 사람>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어기의 의미 특성에서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때밀이’의 ‘-이’와 달리 ‘젓먹이’의 ‘-이’가 <(X하)는 것(일)>의 의미를 실현하지 않는 이유 역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심재기(1982: 310)에서 지적하였듯이 “추상과 구상 간의 의미상의 가역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특정한 어휘가 단일한 언어 사회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쓰이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규칙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접사의 단의를 변별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파생어를 통해 실현되는 다양한 의미가 접사의 다의, 즉 접사에 귀속된

6) 노대규(1981)에서는 접사 ‘-답-’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 어기의 제약뿐만 아니라, ‘-답-’이 포함된 구문 ‘N1은 N2답다’에서 N1과 N2의 관계까지 함께 살폈다. 접사의 특성에 따라 어기의 의미 속성뿐만 아니라 구문 내 공기하는 어휘의 의미 속성까지 아울러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미라는 관점이 함께 폐기된다. 형태 중심의 의미 분석 방법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파생어로 실현되는 다양한 의미를 어기의 의미로 귀속시킬 수 있다면 형태 중심의 의미 분석 방법을 고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때밀이’에 포함된 〈사람〉의 의미를 접사의 의미에 속한 것으로 분석하지 않고, 이를 어기의 의미로 분석하는 식이다. ‘때밀’은 행위를 뜻하는 단어로, 〈사람〉의 의미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때밀’ 자체에 〈사람〉의 의미가 귀속되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어떤 의미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제 의미 중심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이상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자.

3. 의미 중심의 분석 방법

의미 중심의 분석 방법이란 말 그대로 의미 단위를 기준으로 파생어의 의미 구성요소를 분석해 내는 방식을 말한다. 형태 구성단위와 완전히 유리된 새로운 의미 구성단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어기의 의미를 배제한 나머지 의미를 모두 접사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의미 분석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형태 구성요소와 대응되지 않는 의미를 별도의 의미의 구성단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생어의 의미에 어기와 접사의 의미를 넘어서는 제3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새롭지 않다. 구본관(2002: 118)에서는 어기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 외에 파생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또 다른 의미 단위가 존재한

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반영하여 파생어의 의미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4) $X(\text{변수, 어기의 의미}) + Y(\text{변수, 접사의 의미}) + (\alpha)(\text{파생어가 되면서 생기는 변화})$
 $\rightarrow f(X, Y)(\text{파생어의 의미}) + (\beta)(\text{파생어 형성 이후의 의미 변화})$

4)에서 주목할 부분은 파생어가 가질 수 있는 제3의 의미를 ‘파생어가 되면서 생기는 변화 α ’와 ‘파생어 형성 이후의 의미 변화 β ’로 구분하였다는 것이다. 이 논의에 제시된 α 와 β 의 예는 다음과 같다.

- 5) 가. 봄맞이1: <봄을 맞이하는 일>
 나. 봄맞이2: <앵초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
 다. 봄맞: <새싹이 돋고 꽃이 피며 날씨가 따뜻해지는 겨울의 다음 계절을 만나>⁷⁾
 라. -이: ① ‘…하는 행위 또는 사건’
 ② ‘…하는 데에 사용하는 물건이나 도구’
 ③ ‘…하는 사람이나 사물’
 6) 가. 옷걸이: <옷을 걸도록 만든 물건>
 나. 옷걸이에 옷을 걸다.
 다. 그는 옷걸이가 참 좋다.

5나) ‘봄맞이2’는 파생어가 되면서 생기는 변화로서의 의미 α 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예이다. 5가) ‘봄맞이1’의 의미는 제3의 의미 없이 어기 ‘봄맞’과 접사의 ‘-이’의 의미(5라①)만으로 구성된다.⁸⁾ 이와 달리 5나)의

7) 구분관(2002)에서는 ‘봄’과 ‘맞’의 의미를 따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의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 ‘봄맞’의 의미를 합하여 제시하였다. ‘봄맞’에도 ‘봄’과 ‘맞’의 통사적 관계에 해당하는 <‘을’>이 제3의 의미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8) 제3의 의미가 파생어의 필수적인 의미 구성단위는 아니다.

의미에는 어기 의미와 접사 의미(5라③) 외에 <특정한 식물>이라는 제3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α 로 본 것이다.

6다)의 ‘옷걸이’는 파생어 형성 이후의 의미 변화로서의 β 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예이다. 6가)의 ‘옷걸이’가 가진 의미 <옷을 걸도록 만든 물건>은 어기 의미와 접사 의미(5라②)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나, 이와 달리 6다)의 ‘옷걸이’가 가진 의미 <옷을 입은 모양새>는 파생어가 만들어진 이후의 의미 변화에 의해 형성된 의미 β 라는 설명이다.⁹⁾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나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게 된다. 파생어가 되면서 생기는 변화 α 와 파생어 형성 이후의 의미 변화 β 가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점이다.

3.1. 합성적 의미와 비합성적 의미의 구분

질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α 와 β 가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봄맞이2’는 봄을 맞는 식물 중에서도 특정한 하나의 식물을 가리킨다. 의미 특수화(개별화) 과정을 통해 의미 영역이 축소된 결과인데, ‘옷걸이’

9) 『표준』에서는 <옷을 걸도록 만든 물건>에 해당되는 단어는 ‘옷걸이’로, <옷을 입은 모양새>에 해당되는 단어는 ‘옷거리’로 그 형태를 구분하여 등재하고 있다. ‘놀음/노름’과 마찬가지로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판단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한글 맞춤법』 제6장 제57항). 의미 확장의 여부에 따라 파생어의 어형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 이 규정이 파생어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물갈이’는 <수족관이나 수영장 따위의 물을 가는 일: 예)금붕어를 잘 기르려면 무엇보다도 물갈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과 <기관이나 조직체의 구성원이나 간부들을 비교적 큰 규모로 바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이번 인사에서는 수뇌부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의 두 의미가 어형의 차이 없이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상의 내용이 구분관(2002)의 논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시된 예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가 가진 의미 〈옷을 입은 모양새〉의 형성 과정도 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¹⁰⁾ 즉 파생어가 가진 제3의 의미를 파생 과정에서 생성되는 의미와 파생이 완료된 뒤 의미 확장을 통해 생성되는 의미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각 범주의 경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의미를 구분하는 기준을 다룬 논의로는 정한데로(2014)와 김숙정(2017)이 있다. 정한데로(2014)는 복합어의 의미 구성을, 김숙정(2017)은 명사 구성 합성어의 의미 구성을 다룬 논의이다. 합성어와 파생어의 형태론적 지위는 서로 다르지만 황화상(2001)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의미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면 합성어와 파생어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합성어의 결합 단위인 여기는 각각의 의미 경계가 파생어에 비해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의미의 귀속 문제도 좀더 분명한 편이다.

정한데로(2014)에서는 복합어에 포함된 제3의 의미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복합어의 의미를 합성적 의미와 비합성적 의미로 나눈 뒤, 이중 합성적 의미에 포함된 제3의 의미를 α 로 명명하였다. 개념상으로는 구본관(2002)의 α 와 일치된다. 그 하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7) 생성 방식에 따른 α 의 유형 분류(정한데로 2014: 142-145)

가. 의미 추가 α

구두담이: 구두 닦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나. 의미 선택 α

떨이: 팔다가 조금 남은 것을 다 떨어져 싸게 파는 물건

다. 의미 비유 α

총알택시: 과속으로 달리는 택시

10) 구본관(2002: 119 각주15)에서도 익명의 논평자가 지적하였으며, 이와 같은 분석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의미 추가 α’는 ‘구두담이’의 <직업적으로>를 말한다. ‘의미 선택 α’는 ‘떨다’의 여러 의미 중 <팔다 남은 것을 모두 팔아 버리거나 사다>의 의미가 선택되는 것을 말한다. 다의 중 특정 의미 하나를 선택하는 것 자체를 α로 설정한 것이다. ‘의미 비유 α’를 포함한 합성어의 예로는 ‘총알 택시’가 제시되었다. ‘과속으로 달리는(빠른)’의 의미가 ‘총알’로 비유되어 합성어를 형성하는데, 이때 ‘총알’의 비유적 의미 <과속으로 달리는>이 의미 비유 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김숙정(2017)에서도 합성어의 의미를 합성적 의미와 비합성적 의미로 나눈다. 하지만 정한데로(2014)에 비해 비합성적 의미를 좀더 넓게 규정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합성어 전체가 맥락을 통해 얻게 되는 의미를 합성적 의미에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¹¹⁾

정한데로(2014: 77)에서는 비합성적 의미를 ‘공시적 결합을 상정하기 어려운 통시적 변화’로 좁게 정의한다. ‘거추장스럽다, 뇌꿀스럽다’처럼 의미가 불분명하고 자립 명사나 어근으로 보기 어려운 성분(거추장-, 뇌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만을 비합성적 의미를 가지는 합성어로 본 것이다. 합성적 의미와 비합성적 의미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결합의 공시성을 든 것인데, 이때 공시성의 판정 기준은 형태론적 기준인 어기의 자립성이다. 정한데로(2014)에서는 이 외의 의미를 모두 합성적 의미의 범주에 포함한다. 김숙정(2017)에서는 합성적 의미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11) ‘합성적 의미’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다. 황화상(2001)에서는 합성적 의미를 매우 좁게 설정하고 있는데 어기가 가진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모두 합성성을 벗어난 의미로 본다. 예를 들어 <산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산사람’은 황화상(2001)의 논의에서는 비합성적 합성어로 분류된다. <산>과 <사람>의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 <살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숙정(2017)은 황화상(2001)과 정한데로(2014)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좀더 좁게 설정한다.

- 8) 합성적 의미: 합성을 통해 생성된 의미
- 의미 구성의 공시적 분석이 가능한 의미
 - 구성 요소의 의미와, 여기로부터 도출된 추가 의미의 결합으로 구성된 의미

이 논의에서는 합성어의 합성적 의미를 구성하는 제3의 의미 α 를 ‘조어 의미’로 명명하였다. 위 정의에서 ‘여기로부터 도출된 추가 의미’가 조어 의미에 해당된다. 분석(또는 결합)의 공시성 판단에 의미론적 기준을 사용하고, 어기 의미와의 관련성을 합성적 의미의 판별 기준으로 포함하는 것이다.¹²⁾

김숙정(2017)의 방식을 적용하면 6)에 제시된 것 중 의미 선택 α 는 조어 의미에서 제외된다. 정한테로(2014)에서는 ‘떨다’가 다의어이며, ‘떨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선택된 의미 〈팔다가 조금 남은 것을 싸게 팔다〉가 α 라고 본다. 그러나 어떤 단어가 가진 다의 중 하나가 선택되어 합성어의 의미를 이루는 경우를 α 로 보기는 어렵다. α 는 합성의 과정에서 생성된 추가 의미를 말하므로, 해당 의미는 합성어를 이루지 않을 때에는 실현되지 않아야 한다. 즉 독립적인 용법이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합성어를 구성하지 않을 때에도 실현될 수 있다.

- 9) 조금 남은 물건을 싸게 떨고 가려고 해요.

12) 이 논문에서는 정한테로(2014)에 제시된 의미 외에, 구성 요소가 맺고 있는 문법적 관계도 조어 의미로 보았다. 예를 들어 ‘논밭’의 의미 기술에서 접속조사 ‘과’로 표상되는, ‘논’과 ‘밭’의 대등 관계를 문법적 조어 의미로 보는 식이다.

의미 추가 a와 의미 비유 a는 조어 의미에 해당되나, 김숙정(2017)의 논의를 따르자면 의미 추가 a의 예는 다른 것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다. ‘구두땀이’의 <직업적으로>는 ‘구두’와 ‘땀’, ‘-이’ 어디에도 귀속되지 않으며, 또한 구성 성분의 의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의미도 아니다. ‘구두, 땀, -이’가 합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는 <구두를 땀는 일> 정도이다. <직업적으로>는 ‘구두땀이’로 표현될 수 있는 의미 영역을 사람, 그중에서도 직업인(전문가)으로 좁게 제한한다. 이는 해당 단어가 실제 언어 세계에서 한정된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의미, 즉 의미 영역이 특정 맥락으로 제약되는 과정을 반영한 의미이다. 이 과정에 구성 요소의 의미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구성 요소의 의미와 실현 맥락 제약 사이에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합성적 의미의 구성 요소로도 볼 수 없다.¹³⁾ 이 의미는 합성이 완료된 뒤 부여된 의미, 즉 비합성적 의미에 해당된다.

의미 추가 a에 해당되는 보다 적합한 예로는 ‘촌사람, 촌티, 촌스럽다’ 등에서 ‘촌’에 의해 실현되는 의미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은 특정 어휘를 사용할 때 표현 대상에 대한 가치나 평가를 함께 전달한다. 예를 들어 크기가 작은 동물을 뜻하는 단어는 <귀여움>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귀여움>과 같은 의미는 어휘가 가지고 있는 개념적 의미에서 추론되는 것이 아니다. Leech(1981: 9-23)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를 내포적 의미라 하여 개념적 의미와 구분하였다.¹⁴⁾

13) 김숙정(2017: 53-54)에서 <직업적으로>를 합성적 의미로 보지 않는 것은 그것이 맥락 제약이어서가 아니라 구성 요소의 의미에 귀속되거나 각각의 구성 요소로부터 추론될 수 있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합성적 의미로 볼 수 있는 맥락 제약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14) Leech(1981)에서는 의미의 유형을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 연상적 의미

어휘의 의미를 기술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개념적 의미만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단어의 독립적 용법을 기준으로 의미를 다룰 때 내포적 의미는 기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편이다. 단어 간의 차이를 부각하는 중심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어의 과정에서는 내포적 의미가 단어에 대한 가치나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복합어의 어휘 의미로 수렴되는 예가 있다.

- 10) 가. 이런 촌사람을 봤나! 아니 문서 작업을 직접 손으로 한단 말야?
 나. 엄마, 이렇게 촌티 나는 옷을 누가 입어요.
 다. 나 어제 머리했는데, 너무 촌스럽지?

10가)의 ‘촌사람’은 <세련되지 못하고 어수룩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이다. 10나)의 ‘촌티’ 역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데, <세련되지 못하고 어수룩한 모습이나 태도>로 기술할 수 있다. ‘사람’과 ‘티’의 의미를 제외하면 <세련되지 못하고 어수룩한>의 의미가 남게 된다. 이는 ‘촌’의 부정적 가치를 구체화하여 기술한 내포적 의미이다. 이 의미는 ‘촌’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어휘 의미로 사용되지 않지만 ‘촌사람, 촌티’와 같은 단어들에서는 어휘 의미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해당 의미는 10다)의 ‘촌스럽다’와 같은 파생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에도 참여한다.¹⁵⁾

(Associative meaning), 주제적 의미(Thematic meaning)로 크게 분류한 뒤, 이중 연상적 의미를 다시 내포적(Connotative) 의미, 사회적(Social) 의미, 감정적(Affective) 의미, 반사적(Reflected) 의미, 배열적(Collocative) 의미로 나누었다.

- 15) 내포적 의미, 즉 어휘와 어휘에 의해 표현되는 대상에 대해 가지는 가치는 화자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촌’은 <세련되지 못하고 어수룩한>과 상반되는 <순수하고 건강한>이라는 내포적 의미도 가진다. 이 의미는 ‘촌두부’나 ‘촌국수’와 같은 합성어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순수하고 건강한>은 ‘촌두부’의 개념적 의미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므로 조어 의미로는 볼 수 없다.

반복된 조어 과정을 통해 의미 단위로서의 독립성은 확인되나, 해당 단어의 독립적 용법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조어 상황에서만 실현되는 특이한 의미 단위인 것이다.

이제 의미 비유 α 를 살펴보자. 의미 비유 α 의 예로는 ‘총알택시’의 〈과속으로 달리는〉이 제시되었다. ‘총알택시’에서 ‘총알’의 의미는 〈총알〉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보다 훨씬 빠른(=과속으로 달리는)〉이다. 총알이 총구에서 빠르게 발사되는 모습이 총알의 속성으로 포착되어 생성된 비유적 의미인 것이다. 앞서 ‘떨이’에서 선택된 ‘떨’의 의미와, ‘촌사람’에서 개념적 의미가 된 ‘촌’의 내포적 의미에 대해 전자는 어기의 의미로, 후자는 조어 의미로 다르게 분석하였다. 두 의미는 독립적 용법의 확인 여부로 구분되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총알’의 비유적 의미는 조어 의미로 분석된다.

11) 철수는 총알(처럼/같이) 달려갔다.

11)은 철수의 빠른 움직임을 ‘총알’에 비유한 문장이다. ‘총알’의 비유적 의미는 근원 영역인 ‘철수’, 철수와 총알의 공통 특성인 〈빠름〉이 문장을 단위로 확인될 때 해석된다. ‘총알’의 독립적 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의미 선택 α 와 의미 비유 α 의 경계 문제를 살펴야 한다. 비유가 다의화의 중요한 기제 중 하나라는 점이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사전에 제시된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과 같은 상위 정보가 붙은 뜻풀이가 바로 이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는 예이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만 고려하면 의미 선택 α 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전의 등재 여부는 비유적 용법의 단의로서의 지위를 보장하지 않는다. 사전에는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언중이 해당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 즉 단어의 용법까지 수합한 결과가 담긴다. 문맥이나 화맥으로부터 분리해 낼 수 없는 의미가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 독립적 용법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 비유적 의미는 혼치 않으며, 우리는 그와 같은 비유적 의미를 상징으로 변별하여 부르기도 한다.¹⁶⁾

이선영(2017)에서는 지금까지 살핀 예들을 ‘접사화’로 설명하였다. 접사화의 판단 기준으로 ‘비자립성’과 ‘의미의 변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때 비자립성이란 변화된 의미로서의 비자립성을 의미한다. <임금>을 뜻하는 ‘왕’은 단어이지만, <매우 큰>의 의미를 뜻하는 ‘왕소금’의 ‘왕’은 “그 소금은 왕이다”와 같이 쓰일 수 없으므로 접사로 구분하는 식이다. 이 분석을 적용하면 ‘촌사람, 촌티’는 합성어가 아니라 접두사 ‘촌’이 결합된 파생어로 분석될 가능성이 열린다.

이선영(2017)의 논의에는 본고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접사화가 자립 형태가 조어의 과정에서만 확인되는 비자립적인 변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는 설명을 통해 ‘접사의 의미는 조어의 과정에서만 확인되는 비자립적인 의미’라는 전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파생어의 의미 중 자립성이 확인되는 의미를 제외한, 즉 어기의 의미를

16) 조어 의미로 분류된 의미 추가 a와 의미 비유 a 사이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단어에 부여되는 내포적 가치와 단어의 비유적 용법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10)의 ‘촌’과 11)의 ‘충알’은 그나마 원형적인 예에 속한다. 하지만 ‘물수능’의 ‘물’에 의해 실현되는 <쉬움>이나 ‘칼퇴근’의 ‘칼’로 실현되는 <정확함>과 같은 의미는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 비유를 매개하는 공통 속성으로는 근원 영역의 본래적 속성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심지어 부여된 속성까지도 선택될 수 있다. 이처럼 본래적이지 않은 속성이 비유 성립의 매개 특성이 될 경우 해당 의미가 비유적 의미인지, 내포적 의미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제외한 것이 접사의 의미라는 조일규(1994)의 설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파생어의 의미에서 어기의 의미를 제외한 모든 의미를 접사의 의미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파생어의 의미 중 파생 과정에서 형성된 의미와 파생이 완료된 뒤 형성된 의미를 구분하여야 하며, 후자를 접사의 의미로 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2. 접사의 의미와 비합성적 의미의 구분

지금까지의 설명을 이용하여, ‘봄맞이’와 ‘옷걸이’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자.

12) -이

- ① ‘(…하는) 행위 또는 사건’
- ② ‘(…하는) 데에 사용하는 물건이나 도구’
- ③ ‘(…하는) 사람이나 사물’

13) 가. 봄맞이1: <봄을 맞이하는 일>

- 나. 봄맞이2: <앵초과의 한해살이풀 또는 두해살이풀>
- 다. 옷걸이1: <옷을 걸도록 만든 물건>
- 라. 옷걸이2: <옷을 입은 모양새>

14) 가. 봄맞이1: <((…하는) 행위 또는 사건)>

- 나. 봄맞이2: <(((…하는) 사물) ⇒ 식물 ⇒ 앵초)>
- 다. 옷걸이1: <((…하는) 데에 사용하는 물건이나 도구)>
- 라. 옷걸이2:
 - ① <‘(…하는) 행위 또는 사건’의 모양새>
 - ② <‘(…하는) 행위 또는 사건’의 모양새>를 ‘옷걸이1’에 옷이 걸린 모습에 비유

12)와 13)은 앞의 5)와 6)의 예 중 일부를 옮긴 뒤, 수정한 것이고 14)는 파생어의 의미 중 어기의 의미를 제외하고 남은 의미를 12)를 이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정리된 내용에 따르면 14가)와 14다)는 어기의 의미와 12)에 제시된 접사 ‘-이’에 의미로 구성된 합성적 의미이다. 이와 달리 14나)에는 합성적 의미가 다시 〈식물〉, 그중에서도 〈앵초〉로 제한되는 구체화 과정을 겪어 형성된 비합성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14라)는 좀더 복잡한데, 14나)처럼 〈옷을 거는 행위나 사건〉 중 일부인 〈모양새〉로 의미의 초점을 한정한 것이라 볼 수도 있고,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옷을 걸도록 만든 도구〉에 옷이 걸린 모습으로 대응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14나)와 마찬가지로 비합성적 의미에 해당된다. 이에 따르면 구분관(2002)에서 α 와 β 로 구분되었던 의미가 모두 β 로 처리된 것이다.

그렇다면 파생어에는 α , 즉 조어 의미는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생어의 의미에서 접사의 의미로 귀속되는 범주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 문제는 ‘14)에 기술된 의미 중 14나)와 14라)만 비합성적 의미에 포함되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사건의 일부인 〈모양새〉를 비합성적인 의미로 구분한다면 14다)의 〈물건이나 도구〉역시 비합성적인 의미로 구분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접사의 의미를 파생어의 의미에서 어기의 의미를 제외한 의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 또는 다른 의미로의 확장을 설명하기에 용이한 것으로 한정하고, 공유되지 않는 의미 전부를 비합성적 의미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일규(1994)에서 기본 뜻바탕만을 접사의 의미로 보고, 특히 뜻바탕은 파생어의 비합성적 의미로 보는 것이다.

〈행위나 사건〉의 의미로부터 〈사람〉, 〈도구〉, 〈시간〉 등의 의미로의

구체화 과정은 환유에 해당된다. Apresjan(1974: 16)에서는 다의 관계를 ai와 aj의 관계가 ai와 bi와 aj와 bj에 형성되는 규칙적 다의 관계(regular polysemy)와 ai와 aj 간에 의미적 구별이 다른 단어로 나타나지 않는 불규칙적 다의 관계(irregular polysemy)로 나누고, 이때 규칙적 다의 관계는 환유적 전이에서, 불규칙적 다의 관계는 은유적 전이에서 더 전형적이라고 설명하였다. 환유를 통해 생성된 다의 의미의 체계성은 Pustejovsky(1995:31-33)에서는 ‘논리적 다의 관계(logical polysemy)’, Cruse(2000: 113-114)에서는 ‘체계적 다의 관계(systematic polysemy)’로 꾸준히 논의되었다.¹⁷⁾

15) 가. 면도 자국 / 면도를 하다

나. 이발사는 머리를 가지런히 쳐 놓고 면도와 비눗물을 가지고 나의 옆으로 왔다.

차준경(2011)에서는 15)와 같은 단일어의 예를 이용하여 ‘-이’ 파생 명사에서 드러나는 다의성이 접사의 의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차준경(2011: 441)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가 ‘사건 구조의 참여자들이 서로 환유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서 사건 명사의 구체 의미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설명은 이와 같은 의미 확장이 파생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생이 완료된 뒤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본고의 관점을 뒷받침해 준다. 즉 환유적이고 체계적인 다의 확장으로

17) 이민우·김진해(2015: 292)에서는 ‘정성을 담다, 마음을 주다’에 나타난 [추상적인 개념은 물이다]와 같은 존재론적 은유도 체계적 다의 관계의 예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는 최상위의 존재론적 은유에 한정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는 의미는 비합성적 의미로 구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앞의 질문 ‘파생어에는 조어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가’에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이선영(2017)의 접사화에 대한 정의로부터 추론된 접사의 의미에 대한 규정 ‘조어의 과정에서 확인되는 비자립적 의미’가 답이 될 수 있다. 이를 김숙정(2017)의 용어로 치환하면 조어 의미가 된다. 파생어의 합성적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는 어기의 의미와 접사의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접사의 의미가 바로 조어 의미에 해당된다.

그간 접사는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형태 중심의 의미 분석 방법에서는 접사가 독립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없는 단위라는 점을 접사의 의미를 무한히 확장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접사는 파생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의미, 즉 파생어의 합성적 의미 중 어기의 의미를 제외한 부분의 의미만을 담당하면 된다. 접사 ‘-이’에 귀속되는 의미는 <(-하는) 일>까지이다. ‘-이’ 결합 파생어들에 나타나는 그 외 다양한 의미는, 즉 파생이 완료된 이후 형성되는 비합성적 의미는 접사의 몫으로 기술되지 않아야 한다.

접사의 의미를 다룬 상당수의 연구는 사전의 뜻풀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전은 사전 이용자가 해당 표제어의 실제적 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사전에서 접사의 뜻풀이에 파생어에서 어기의 의미를 배제한 모든 의미를 망라하여 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용법을 나열하는 방식은 동일한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들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쉽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에 제시된 접사의 뜻풀이가 잘못되었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기술된 뜻풀이 모두를 접사 자체의 의미로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 결론

본고의 목적은 파생어의 의미 구조를 고려하여 접사의 의미를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파생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관점을 형태 중심의 분석 방법과 의미 중심의 분석 방법으로 나누었다. 형태 중심의 분석 방법은 파생어의 의미 구성단위가 형태의 구성단위와 일치한다는 가정 위에, 파생어의 의미를 어기의 의미와 파생 접사의 의미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전이 형태 중심의 분석 방법을 통해 접사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형태 중심의 분석 방법은 단절적 분석 방법과 연계적 분석 방법으로 더 나눌 수 있다. 단절적 분석 방법과 연계적 분석 방법 모두 접사의 몫으로 남겨진 다양한 의미를 유형화하기 위해 고안된 수단이다. 단절적 분석 방법은 파생어의 의미에서 어기의 의미를 배제한 뒤 남은 의미를 모아 접사의 의미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접사의 의미를 기술할 때 어기에 관한 정보는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연계적 분석 방법은 어기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접사의 의미를 기술하는 방식이다. 연계적 분석 방법은 주로 접사의 다의를 변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형태 중심의 분석 방법은 파생어의 의미에서 접사가 차지하는 비중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문제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의미 중심의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접사의 의미로 다루어진 의미 중 상당 부분이 접사의 의미가 아니라 별도의 의미 구성단위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개념을 확인하였다. 첫째는 파생어의 의미를 파생을 통해 형성되는 합성적 의미와 파생이 완료된 뒤 형성되는 비합성적 의미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파생어가 다의의 확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미를 합성적 의미로 분석해 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파생어의 의미에서 접사의 의미로 귀속되는 의미를 동일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의미로 제한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예의 파생어를 통해 본고의 주장을 확인하는 후속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¹⁸⁾ 다만 본 연구가 형태론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던 파생어와 합성어의 구분, 접사의 어휘화 및 어휘의 접사회를 포함한 접사의 범주 설정의 문제 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작점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18) 익명의 심사자로부터, 한자 접두사 ‘假-’와 같이 그 의미가 비교적 분명한 파생 접사까지 의미 중심의 분석 방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유의미한 질문을 받았다. 접사의 의미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 분석을 적용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분리하여 서로 다른 분석 방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한가 하는 점에 의문이 있으나, 더 많은 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 구본관(2002), “파생어 형성과 의미.” 『국어학』 39. 105-135.
- 김계곤(1996), 「현대 국어의 조어법 연구」. 박이정.
- 김숙정(2017), “명사 구성 합성어의 조어적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령(2007), “현대 국어 고유어 접사의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대규(1981), “국어 접미사 ‘답’의 의미 연구.” 『한글』 172호. 57-104.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태학사.
- 송현주(2011), 「국어 구조와 의미 간의 동기화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 이민우·김진해(2015), “다의 구분과 다의 유형에 대한 연구.” 『언어학 연구』(한국중
원언어학회) 37. 281-300.
- 이선영(2017), “국어의 접사화에 대한 단견.” 『한국학연구』(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
소) 44집. 399-421.
- 정한테로(2014), “국어 등재소의 형성과 변화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일규(1994), “국어 이름씨 뒷가지의 변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차준경(2011), “‘-이’ 파생 명사의 다의 형성.” 『한국어의미학』 34. 431-450.
- 하치근(1989), 「국어 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 하치근(2010), 「우리말 파생형태론」. 경진.
- 황화상(2001), 「국어 형태 단위의 의미와 단어 형성」. 월인.
- Apresjan, J.D.(1974). “Regular Polysemy.” 5-32. *Linguistics* 142.
- Cruse, D.A.(2000). *Meaning i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임
지룡·김동환 옮김. 2002. 『언어의 의미: 의미·화용론 개론』. 태학사.)
- de Saussure, F.(1916).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김현권 역
(2012). 『일반언어학 강의』. 지식을만드는지식.
- Leech, G. N.(1981), *Semantics(2nd)*, London: Penguin Books.
- Pustejovsky, J.(1995). *The Generative Leicon*.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Abstract]

Derivative semantic structure and affix meaning

Kim Suk-j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sider the meaning of affixes in the semantic structure of derivatives. To this end, we first divided the perspective of analyzing the meaning of a derivative, a form-based analysis method and a meaning-based analysis method. We pointed out that the former method puts a burden on the affix more than necessary, then confirmed the concepts necessary to use the semantic-based analysis method as an alternative. The first is that the meaning of a derivative word should be divided into a compositional meaning formed through derivation and a non-compositional meaning formed after derivation is completed. The Second, the meaning that a derivative word can obtain through the expansion in use should not be analyzed as a compositional meaning. In this process, the reason why only the meanings commonly found in derivatives combined with the same affix should be attributed to the meanings of affixes was also confirmed.

Key words : form-based analysis method, meaning-based analysis method, meaning of affix, compositional meaning, non-compositional meaning

논문접수일 : 2020.07.04.

심사완료일 : 2020.08.13.

게재확정일 : 2020.08.20.

*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Lexicography,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ersity / wwssoogi@korea.ac.kr